# 실록박물관 전관 개관…월정사 박물관 마을 '화룡점정'

진부=신중일 기자



4월 30일 열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조정래 소설가 등이 개관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새 조성**
**전시, 체험 콘텐츠 등 대폭 강화**
**5월 1일 정식 개관…특별전 진행**
**오대산 사고서 실록 말렸던 '포쇄'**
**참여인사 기록 〈심헌록〉 첫 공개**

진부 월정사 박물관 마을에 자리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관장 김정임, 이하 실록박물관)이 전시 시설과 콘텐츠 확충을 마치고 5월 1일 전관 개관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한강 시원지 박물관에 이어 실록박물관까지 정식 개관을 마침으로써 월정사의 오대산 박물관 마을은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실록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월정사가 중심이 된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지본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이하 '의궤')의 원본을 만날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다.

지난 2023년 11월 개관했으나 상설전시·교육·영상 콘텐츠 확충과 어린이박물관 조성 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임시 휴관했으며, 10개월간의 단장을 마치고 이번에 전관 개관하게 됐다.

### 실록 말렸던 포쇄 기록 만나다

전관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전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은 실록박물관 관람의 주요 포인트다.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사고의 설립과 운영, 쇠퇴의 역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4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문화유산은 '포쇄(曝曬)' 관련 기록들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실에서는 국가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산 속 깊은 곳에 외사고(外史庫)를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오대산 사고도 조성됐다. 사고들이 산속에 있다 보니 습기에 약한 서적 관리를 위해 사관들을 파견해 주기적으로 책을 꺼내 바람에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포쇄'라고 한다.

포쇄를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들은 이를 영예롭게 여겨 공식 기록 외에도 시문(詩文)이나 암각문 등의 자취를 남겼다. 번암 채제공, 추사 김정희와 같은 명사들도 젊은 시절 포쇄를 위해 오대산 사고에 다녀갔고, 포쇄 후에는 관동 지역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실제 추사 김정희는 포쇄 이후 강릉 오죽헌에서 〈심헌록(尋軒錄)〉이라는 방명록에 이름을 남겼는데, 이 방명록이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심헌록〉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270년 동안 강릉 오죽헌을 다녀간 인사들의 방명록으로, 1662년 권상하(權尙夏)부터 1932년 이항구(李恒九)까지 114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또한 전시에서는 동여도(東輿圖)와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 등 조선시대 지도와 화첩을 통해 오대산사고를 다녀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대산사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동여도에는 오대산 사고 등 사고들이 위치가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어 흥미롭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시설과 콘텐츠 확충을 마치고 5월 1일 전관 개관했다.

신재근 실록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606년 강원도 오대산에 설치된 '오대산 사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평창 지역에 지어졌지만 3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왕실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실제 조선 조정에서는 오대산 인근 지역에서 참봉을 임명하고 수직승도(건물을 관리하는 스님), 수호군(사고를 지키는 군사) 등을 구성해 오대산 사고를 지키게 했다"면서 "국가의 중요도서를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 그들의 뒷이야기를 이번 전시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 실록 속 동물 친구 만나볼까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실록과 오대산 사고에 흥미를 갖도록 새로 조성한 어린이박물관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숲속 임금님의 보물창고, 오대산 사고'라는 주제로 고양이, 앵무새, 호랑이, 여우, 원숭이, 낙타, 코끼리 등 실록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캐릭터화 해 실록과 의궤의 제작 과정 및 보관 방법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오대산사고의 실록을 보존하는 건물인 '사각(史閣)'을 본떠 만든 공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몄으며, 실록을 만들고 보관했던 방법 등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게임 형태로 구현했다.

### 실록 · 의궤 편찬부터 환수까지

실록박물관은 실록의 원본을 상시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실록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구성했다. △1부 '깊은 산속에 품은 조선왕조의 역사, 오대산사고' △2부 '조선왕조실록, 역사를 지키다' △3부 '조선왕조의궤, 왕조의 모범을 보이다'로 구성된 상설전시실은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실록과 의궤의 편찬과 분상(分上)부터 1913년에 반출된 후 110년 만에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냈다.

김정임 실록박물관장은 "실록박물관을 국가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세계적 박물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조사·전시·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관 개관에 앞서 4월 30일에는 개관식이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선덕 원행 스님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재원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실록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선림원지 불상, 만져보며 알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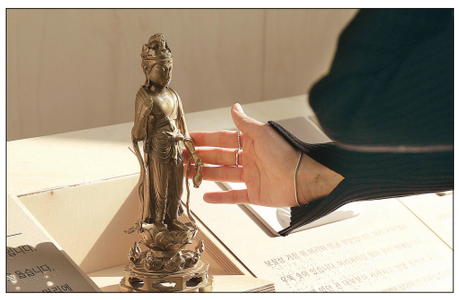
## 국립춘천박물관 '모두 위한 문화놀이터' 조성

**불상 모형 촉각전시물 활용**
**'배리어프리' 콘텐츠 눈길**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전시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촉각전시물 체험 공간 '모두를 위한 문화놀이터'(이하 문화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5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한다.

본관 1층에 있는 문화놀이터에는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고려 초기 강원 지역 철불을 대표하는 원주 학성동 출토 철조약사불좌상(보물)을 모형화 한 촉각체험물 8점이 설치됐다. 축소한 보살상을 환조 형태로 제작해 관람객이 손으로 만져보며 전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각의 환조 체험물 앞에 음성안내기를 설치해 소리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환조로 제작된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촉각체험물을 관람객이 체험하고 있다.

나아가 불상과 보살상 각 세 부분을 부조로 만들고 각각 풍부한 설명을 곁들이고 이에 대한 점자를 마련해 관람객이 세부 표현까지 이해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다른 박물관 촉각체험물과 차별화되는 기획이다.

'모두를 위한 문화놀이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콘텐츠가 반영된 공간이다. 전시실 출입구부터 체험 시설을 안내하는 촉지도와 점자 설명문, 음성 안내기가 있고 촉각전시물 체험대까지 인도하는 점자 블록이 바닥에 부착돼 있다. 점자 블록을 대각선으로 설치해 이용자가 공간을 가로질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간 가장자리로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전시품 수어 해설 영상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람객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문화놀이터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 〈불교학연구〉, 韓불교 최초 스코퍼스 등재

**불교학연구회 발간 학술지**
**세계적 학술 인용 DB 평가**
**"국제적 학술지 위상 확보"**

불교학연구회(회장 김원명)가 발행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가 세계적인 학술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공식 등재됐다.

'스코퍼스'는 글로벌 출판사 엘비어스(Elsevier)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용 데이터베이스다. 전 세계 5000여 개의 학술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저널·회의록·단행본 등을 포괄하며,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색인화하고 있다. 엄격한 선별과 심사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항목으로는 논문 품질, 심사 과정의 투명성, 국제 접근성, 인용도 등이 있다. 한국 종교 관련 학회, 연구소 중에서는 서강대 종교문제연구소의 〈한국의 종교(Journal of Korean Religions)〉만이 스코퍼스에 등재돼 있다.

2000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불교학연구〉는 2015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불교학 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우수등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스코퍼스' 등재로 〈불교학연구〉는 한국 불교학의 중심 저널로서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한국어 논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학술지가 국제적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원명 회장은 "〈불교학연구〉는 한국어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됐음에도 '스코퍼스'에 등재된 드문 사례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의 활발한 투고와 학문적 완성도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인문학계에서 영어 중심주의를 넘어, 한국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 대형 괘불 시초 '무량사 괘불도' 국보 지정

대형 괘불의 시초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권7, 〈동국이상국전집〉권18~22·31~41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을 자랑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가유산청 지정 공고 발표**
**대방광불화엄경소 등 보물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던 괘불도는 처음에는 본존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좌상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괘불도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칠장사 오불회 괘불' 등 7점의 국보와, '죽림사 세존 괘불' 등 55점의 보물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여 건이 전하고 있다.

괘불도의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의 경사다. 국가유산청은 "화기(畵記) 등의 기록에 제작자, 화제(畵題) 등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동일 유형의 도상 중 가장 선구적이어서 영향력이 큰 괘불을 기준으로 국보 지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보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불화다. 국가유산청은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면서 "특히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이 같은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법경·혜윤·인학·희상 스님 등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는 주존의 명칭을 밝히고 있어,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 속에서 제작된 괘불도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소〉권118은 당나라 승려 징관(738~839)이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를 송대 승려 정원(1011~1088)이 상세하게 해설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120권 중 권118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신중일 기자